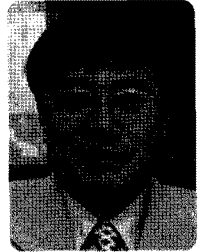


【특집: 2011년 축종별 배양사료산업 전망】

## 산란계 및 육계 사료산업 전망



원재곤  
서부사료(주)  
생산본부장·상무이사

### □ 서론

2011년 국내외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 활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까지 한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양호한 경기흐름에 힘입어 2010년 한국경제는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1년 선진국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과도한 자본 유입의 방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SERI)도 201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경기 둔화 속에서 수출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및 건설투자 회복세도 미흡할 것으로 평가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

경제부는 2010년 4분기에 자동차, 정밀기기 등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 전망치를 높게 보고 있다.

이는 과연 2011년에도 앞서 불안정한 경기 전망과 상충하여 경기 호조를 지속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세계 속의 경제성장을 둔화와 불안정한 환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제정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운영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현 시기의 축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칠레는 FTA 교역 중이며 앞으로 미국, EU와의 FTA 협상 타결은 우리가 타개해야 할 큰 과제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 발표한 계란위생관리 종합대책과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점점 더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닭고기와 계란의 공급과 수요량은 소폭 증감 추세를 나타내며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1인당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량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한 닭고기 수출

량은 2005년(2,478톤) 이후 2008년(9,283톤)으로 374%의 가파른 증가 폭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비만의 위험성에 위기를 느끼며 기존의 적색육에서 백색육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저열량 고단백질의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형육 사육을 통해 본격적인 닭 가슴살 등의 부분육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반면 현재 닭고기 수입량의 대폭 증가 추세는 국내 닭고기 생산량과의 관계에 있어 닭고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닭고기, 계란 소비 촉진 운동 등의 양계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 학교 급식사업의 팽창,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체계적 가축질병 방역 통제 시스템 구축,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HACCP인증 업체 확대 등은 추후 양계시장 형성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 본 론

### 1. 산란계

#### 1) 산란종계 입식 현황 및 사료 생산량

2010년 7월 산란종계 입식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하였다.<도표1>. 반면, 7월 산란종계 사육수는 2009년 동월대비 21.9% 감소하였으며, 육성계 사육수 또한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하였다. 종란계군수도 함께 전년 동월대비 30.1%감소하여 사료수요

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러한 산란 종계사육수와 육성계 사육수 및 종란계군수의 전체적인 하락과 7월 산란종계 입식수의 전년 동월대비 11.1%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2011년 산란종계, 육성계, 종란계군수의 상승으로 일부 종계사료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관측 센터에 따르면 9~11월 계란 생산에 새로 진입하는 실용산란계 계군은 전년보다 8.5% 증가할 예정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상반기까지 산란사료 생산량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석 명절 이후 가격 하락 우려로 인해 노계 도태를 지속하는 상황으로 이후 사료 수요량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 농업관측 센터에 의하면 계란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9~11월 계란 평균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0.9~18.1% 하락한 950~1,150원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상반기 산란사료 생산량은 1,111천톤에서 2010년 상반기 1,148천톤으로 3.25% 증가하였다<도표2>. 산란 육성계 사료생산 또한 전년 상반기 174천톤에서 187천톤으로 7.4%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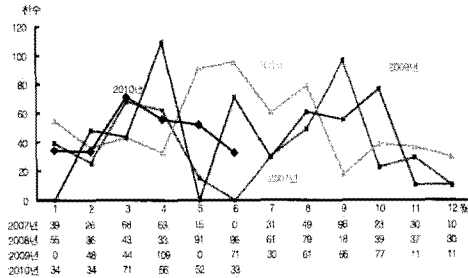
이처럼 산란계와 산란 육성계의 사료 생산이 매년 지속적인 소폭 상승세에 부합해 앞서 언급한 산란 종계와 산란 실용계군의 증가는 사료 생산량을 더욱 증가 시킬 것으로 보인다.

#### 2) 난가 형성

산란 실용계의 증가 및 계란 생산량 증가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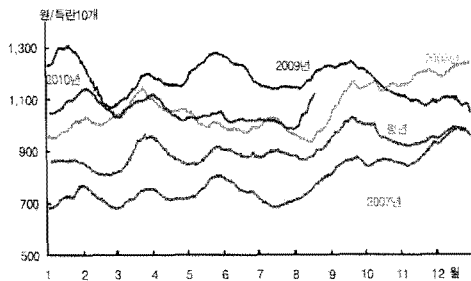
산란종계 입식 동향



<자료: 대한양계협회>

<도표 3>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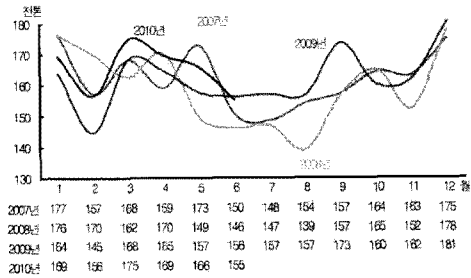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로 인해 계란 가격이 하락 되는 가운데 실제 8월에 계란 가격은 1,058원을 형성했다<도표3>. 이는 전년보다 10.7%하락한 가격이다. 이는 앞으로도 가격 하락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이나, 최근 우리나라에 불어온 잦은 이상기후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대체 구매로 계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기적으로 추석 명절이후 산지 난가 가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였지

<도표 2>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 동향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만 소비자의 계란 수요 증가와 계란 생산량 증가가 어떤 변수로 작용해 가격형성을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현재 산란종계 조기 도태의 의향변화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재고 해 봐야 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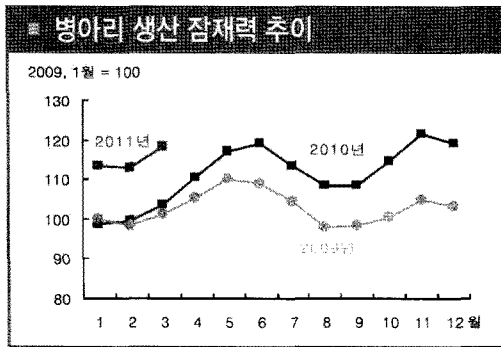
2. 육 계

1) 육용종계 입식 현황 및 사료 생산량

육용종계 입식수는 2010년 3월 이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8월 기준 육용종계 입식현황은 2009년 659천수에서 2010년 831천수로 작년 동월기준 26%증가하여 그 잠재력은 육용 실용계가 난을 생산하는 2011년 상반기부터 육계병아리 생산증가가 예상된다<도표4>.

7월 육용종계 사육수는 6,442천수로 전년 동월대비 11.1% 증가하였고, 실제 종란생산 계군수는 3,800천수로 전년 동월대비 7.3%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대한양계협회

<도표 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B참고> 육계의 사육수는 2009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10년 상반기에는 3.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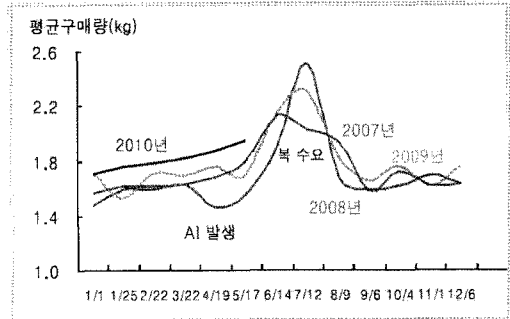
실제 육용종계 사료 배합 실적으로 전년 상반기(1~7월)와 비교해 볼 때 금년 상반기에 사료생산량이 7% 상승하였다. 이는 실제 사육수의 증가에 따른 사료생산량의 증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육계사료 생산량을 살펴보면 2009년 상반기(1~7월) 1,180천톤과 비교하여 2010년 상반기(1~7월) 1,235천톤으로 4.6% 증가하였다. 이러한 육용종계와 육계의 생산 증가폭은 특별한 바이러스성 질병(AI)이나 유행성 질병(ND, IB)등 차단 방역에 힘쓴다면 이러한 증가추세를 2011년 상반기에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앞서 말했듯이 계육의 수입량이 증대 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쳐 사료 수요량이 어떻게 형성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로 관련 기관 및 단체는 국내산 닭고기가 안전한 축산물이란 인식을

<도표 5>

■ 닭고기 평균 구매량



<자료: Kantar World panel Korea>

소비자에게 홍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경쟁력 있는 계육 브랜드 개발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축산 업계는 기업과 농가의 HACCP 인증 확충과 농가의 질병 차단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 닭고기 수입량 및 수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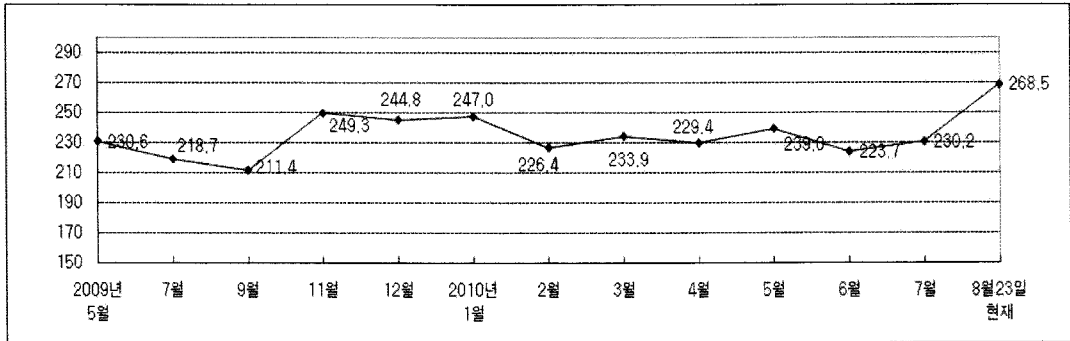
10월 닭고기 수입량은 9,000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0.6% 증가한 양이다. 한국 농촌경제 보고에 의하면 이는 환율 하락세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고 하였다. 또한 냉동 비축물량은 전년 대비 23.5% 증가한 양이지만 평년 적정 재고보다 낮아 비축여력은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하였다.

환율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수입량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의 닭고기 수요가 전년보다 증가하여 2010년(1~5월) 가구당 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8.2% 증가 하였다

<도표 6>

【미국산 옥수수(GULF) 가격 추이】

(단위 : C&F, US\$/MT)



<자료: 한국사료협회>

<도표5>. 이는 궁극적으로 육계 수요의 증가로 생산량 증가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의 수입량과 치킨 프랜차이즈의 활성화 그리고 출하 육계의 산지 가격의 형성 등 어느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해 육계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 3. 곡물가격 변동 및 유가 변동

세계 소맥 재고와 미국 옥수수 재고의 감소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며 또한 7~8월의 고온건조 기후로 흉작이 예상되어 미국 옥수수는 8월 23일 기준으로 가격이 전월대비 16.6% 상승한 268.5달러/톤이다<도표6>. 또한 미산 대두FOB가격은 전월대비 5.7% 상승한 480.6달러/톤대이며, 미산 대두박 FOB가격은 전월대비 5.0% 상승한 443.2/톤대이다.<한국사료협회>.

따라서 양계사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대두박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

는 가운데, 적절한 원료수급 대책과 사료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불안정한 환율 변동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과 기업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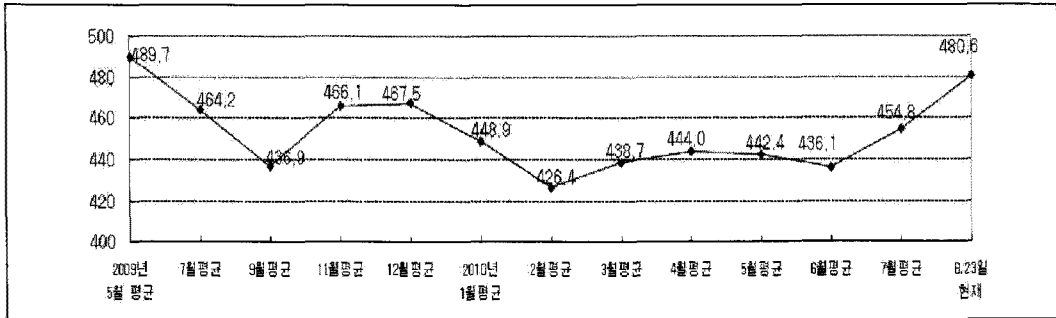
유가변동 사항은 2010년 8월 에너지 경제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 원유가격은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일 것이나, 허리케인 피해 여부, 세계 경제의 회복 수준, OPEC의 생산정책 등이 유가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각 경제 전망은 세계 경기가 금년보다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량 감소가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가파른 상승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OPEC의 생산정책이 유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어 안심 할 수 없다.

<도표 7>

【미국산 대두 가격 추이】

(단위: C&F USS/MT)



<자료: 한국사료협회>

□ 결론

2011년 한 해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율이 금년보다 둔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로 각종 재화뿐만 아니라 축산물 또한 소비 침체가 예상된다. 그리고 각 국가와의 FTA협상으로 인해 국내 양계시장 변화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축산업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으며 그 중 양계시장을 살펴보면 채란 농장의 수익률 감소, 유통구조의 문제점 등 그 상황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외부적으로는 불안정한 환율변화,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변동, 내부적으로는 양계 생산물의 가격형성 예측변화, 질병 발생, 육계·산란계의 생산성 변화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하여 각 요소가 어떻게 상충하여 양계시장이 형성될지는 예측하기 매우 조심

스럽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의 시장에 좀 더 근접한 상황을 진단함으로써 위험요소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현상 파악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소폭으로 양계사료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일인당 닭고기와 계란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의 추세로 보면 전체적인 양계 물량은 생산이 소폭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육의 급격한 수입 증가 추세는 국내 시장의 계육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채란 업계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난가 하락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안전한 계란을 생산 공급하고, 질병 차단 방역에 더욱 힘써야 큰 손실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